

驚愁의 잠겨는다
 하로도 열두시요
 한달도 칠흔날의
 어니날의 閑暇한
 清淨한 佛性은
 사람마다 가첫신들
 어니날의 생각하며
 恒沙功德은
 未來俱足한들
 어니날의 버어술도
 西往은 멀어지고
 地獄의 갓잡다
 미보시오 어루신데
 勸하노니 稱讚善根
 今生에 하은功德
 後生에 受하나니
 百年食物은
 하루아침 혀늘어오
 三日하은 念佛은
 百千萬劫의
 다할업은 보배로세
 이와 이보배
 歷千劫而 不測하고

瓦萬世而 常음이라
 乾坤이 頂다한들
 이마음에 冥칠손가
 日月이 밝다한들
 이마음의 冥칠손가
 三世諸佛은
 이마음을 아르지고
 六道衆生은
 이마음을 知바들새
 三界輪廻를
 어니날에 冥칠손가
 커건다 冥각하야
 마음은 舍키먹고
 大虛를 생각하니
 山疊々 水游々
 風瑟瑟 火明々하고
 松竹은 落々한대
 華嚴하다 건디키어
 極樂世界 도리가니
 七寶金池의
 七寶網을 들었스니
 구경하기 더욱못대

오날白髮 恨愁하다
 아피나갈 無病라가
 키되나갈 다못가서
 손발벗고 죽는人生
 目前에 願多하니
 오날이아 無事한들
 明々를 定할손가
 困々히 주어모와
 冥百年 사라하노
 財物의 不足心은
 天子라도 업잔나니
 貪慾心을 후리치고
 精神을 얼키내야
 奇勝한 山水間에
 物外人의 되라무나
 사암되기 어렵음이
 寶龜浮木 것드거늘
 佛菩薩의 恩德으로
 이몸이며 나와사니
 이안의 多幸한가
 佛菩薩의 恩德을남
 寸草에도 잊지말고

阿彌陀佛 어서하야
 極樂으로 도리가세
 主公公 主人公아
 殘殘코 可憐하다
 百年도 못다사는
 이한을 구지미며
 무삼滋味 보라하고
 먹고남는 田疇사기
 쓰고남는 財物의는
 愛慾되기 經營하야
 無益한 食心으로
 平生의 바래는다
 舍차라모 主人公아
 石炭이도 炭로죽고
 范丹이도 糞잔나니
 가난코 裕餘카와
 잘되고 못되기를
 前生에 지은과로
 이몸되며 나술치어
 天定으로 마련하야
 自然明白 하되가늘

불웃레 이실것을
 危殆한 이목숨을
 千年마치 살쳐버려
 그대도류 열되이나
 瞋心惡想 다투올대
 對面하기 놓남도다
 主公公 主人公아
 目前의 보느것이
 丈丈치 저올이나
 못못나나 主人公아
 못못나나 主人公아
 버의慾心 모로가른
 甘을보아 舍차라무
 秦蘇菜 漢소파도
 財物을 舍치거든
 더는어니 모르는다
 기별업는 모진病의
 一朝의 몸의물어
 三百六十 骨節마다
 마피마피 苦痛할대
 八珍味 맛난飲食

世間食着 고만두고
 懺悔心을 일으와서
 일즉念佛 잊더하노
 어젯날 少年으로
 最親至親 모다들어
 至誠으로 勸하여도
 찬을바게 못되오니
 실은지라 主人公아
 前生에 원수로서
 빚갚부러 든病이아
 牛黃으로 어이하며
 人蔘으로 補氣할대
 扁鵲의 醫術인들
 天命을 어이하리
 千金을 虛費하고
 萬藥을 다드려도
 勞而無功 원이로다
 어화 可笑롭다
 佛法을 우웃더지
 念佛하면 아나하고
 莊嚴부러 단이다가
 病中에야 後悔하야
 그치야 佛供하야
 觀音菩薩 念히차자

九品蓮臺에
 念佛소래 자스밋고
 背背白鶴과
 鸚鵡孔雀과
 金鳳青鳳은
 하니나 念佛이시
 南無阿彌陀佛
 비록無常을말하밋스나 作者는조공도沈隱한風스보이지안
 로 勇敢스려은 武士를象出하여 그가모든惡賊을討滅한뒤
 衆生을다리고 清風을고自雲이라나는바다를건너光明한理想
 世界(極樂)로배커어가면서可憐한人間事를同願함으로外比
 輪轉밋스며 極樂은實도此生과全然殊異한道場沒交涉한世界
 가안이오 다맛바다하늘을隔하여잇는目前의第二世界가其巧
 妙妙說明하야 못는者의마음으로하여吾彼岸의理想國에踰躍
 케하였다 우리는이노래의文學的價值며그技巧를評하기보다
 이노래의가진作者의布敎의勞心이며 民衆思潮의 反影及佛敎
 文學의社會生活에미친感化等을主張 생각하여야할것이다 그
 들은決코民衆를度濟의道에導入코키는안이하였다 그들
 의文學은차라리苦界에呻吟하는民衆에게勇氣와光明을주코키
 勞力하였다

四、自責歌

1 主人公 主人公아

世間食着 고만두고
 懺悔心을 일으와서
 일즉念佛 잊더하노
 어젯날 少年으로

一心正念 어드리라
念佛敬을 구경하니
至誠으로念佛하면
念佛인의 姓名字는
開羅大王 名傳안에
반듯이 어워내고
極樂世界 蓮花上에
明白히 記號하고
觀音勢至 大菩薩의
神變되여 단이다가
이 목숨 다 할때에
阿彌陀佛 大聖賢의
念佛人 다려갈때
無數한 大菩薩과
數多한 聲聞緣覺
各々히 香華하고
雙々히 幢幡주며
百千風樂 울리시고
阿彌陀佛 陶醉하니
極樂世界 莊嚴보소
黃金으로 寶의되고
七寶池 甘露의
佛수여 생겼시되

八功德水 맑은물이
가득히 실어있고
물미레 알닌모래
純色으로 黃金이오
꽃가운데 蓮花꽃은
青蓮花 黃蓮花요
赤蓮花 白蓮花라
수레박구 가를蓮花
四節에서 피어있되
七寶池의 자작는피
青色에는 青光이요
黃色에는 黃光이로
靑黃赤白 四色光明
서로서지 어러잇고
香華는 微妙한데
그우에 樓閣집이
虛空中에 가득하되
七寶로 莊嚴하니
黃金 白銀이오
琉璃 瑪瑙로다
色々으로 寶의시되
七寶 閻浮의
七寶池를 寶의시며

七寶香樹 보배나무기
인공불도 들녘사라
靑鶴白鶴 鸚鵡孔雀
迦陵頻伽 勇猛鳥라
가지가지 새짐찬의
七寶池 香樹에
아리나라 귀리가며
귀리나라 이리오며
가며오며 우는소리
소래마다 說法이요
清風의 건뽕불연
七寶香樹 승적일체
해경명경 나는소리
百千風流 울리는듯
들니는 소리마다
念佛說法 樂이로다
그樂인가 귀樂은
樂書를 안이하되
옷발을 생각하면
옷발이 칠노오니
阿彌陀佛 因行하여
四十八願 願力으로
그려함이 안이산가

極樂世界 莊嚴相의
大綱이 귀려한들
微細한 節目이안
일우다 이을손가
念佛人 다려다가
귀리조흔 蓮花葉의
두려서 안쳐두고
阿彌陀佛 金色身의
緣羅衣上 조흔옷에
紅袈裟를 입우시고
玉毫光을 노호시며
無常說法 寶의시며
인손은 가삼에두고
오른손은 뒤리오사
이마를 만지시며
一生校記 준다하니
어서가라 勸한말삼
八萬大藏經에
經文마다 입어잇고
百千 論文中에
歷々히 일너시니
이러귀한 사량일체
귀리조흔 極樂國을

복달나 우물산물
本來입는 네精誠에
隨隨케야 아담한들
어니부치 應慈하리
閻羅大王 부린差使
隊惡하고 險使使者
너門前에 迫對하야
人情입시 달너드러
眞誠갓치 잡아잡혀
간데마다 사권主人
극자사자 親善빛이
키하여 化身가리
생각건면 그뒤사며
사량로 귀한樂을
못내어지 케와내든
妻子眷屬 一家中에
化身가리 그뒤고
한平生 晝夜입시
처위더워 생각잔로
千辛 萬苦하야
근심으로 작만하고
懇心으로 일워내든
玉地玉香 家庭之物

奴婢牛馬 千財萬財
아모리 악가운들
어디가 人情하며
지고가며 안고갈까
반손으로 나뉘다가
반손으로 도라가니
百年食物 一朝盡을
친고입는 冥間집의
할질입는 孤魂이라
시왕(十王)前에 추달을
牛頭羅刹 馬頭羅刹
左右便에 列立하야
번개가총 槍劍으로
압々히 들락이며
바로하리 號令할체
骨節의 들터지고
오오들의 피땀진들
어느친고 뒤발보리
妻子眷屬 一家마다
날죽었다 실피운들
지연을 어이알나
실부고 실은지라
高聲大號 痛哭하든

子孫親戚 ამ안인들
죽은父母 생각하야
惡度하자 譴論함이
千萬中에 몇치치의
初喪三喪 가는날에
슬고기나 피게하고
生命이나 財物이면
그대지 淸한결만
남의눈을 淸하리라
마지마라 하진다는
罪緣故에 依托하니
罪目은 되지아도
벼락은 내갈키니
雪上加霜 부삼원고
牛前富貴 多子孫은
사람마다 부러하되
死後에는 파옥산다
平生의 지은罪業
歷々히 考辨하야
八萬四千 無間獄을
罪한罪로 마련하고
그남아 죄은罪는
소되키니 말되키니

개승생 배알되나
엇더한 엇진일노
人道運生 다시하리
생각하면 가어업다
主人公 主人公아
釋釋하고 念佛하서
釋運世尊 勸한念佛
十六觀經 이은말삼
日沒觀의 第一이나
西山에 지안해를
開目에나 閉目에나
眼睛에 거려두고
阿彌陀佛 大聖賢을
晝夜입시 외우리라
正念이 逃亡하고
雜念이 첫들가든
勸하야 自貴하야
患災가치 근심하고
世事가치 變着하야
日久月深 工夫하면
世情은 變이가고
念佛의 주장되야

못듯고는 마려니와
못고찰아 안이갈아
人間世上 危殆하니
귀極樂에 어서가세

主人公 主人公야
한가름 불너서서
삼수로 생각하소
귀를외어 못한念佛
늘은後에 합일합대
無常救鬼 人情입시
二十前 三十前의
조정입시 죽는人生
의외커고 無數하니
늘가든 하지그리
정말한고念佛하세
無病할때 못한念佛
病後後에 어이하리
오날來日 이명지명
올때들메 지나다가
뜻입시 죽어지면
刀山地獄 劍樹地獄
火海地獄 熾炭地獄

地獄에도 드다하니
人間에 若干家際
하를다 미들손가
念佛은 업키을사
一生에 발소장든
犀牛坦의 罪惡人도
臨終에念佛하면
地獄報을 消滅하고
極樂으로 바로가나
어림으로 이念佛은
十方世界 恒沙佛의
한가지로 讚嘆하고
歷代聖賢 奉之르다

農事와 질삼을남
今生에 生利하고
아미라를念佛을남
後世에 極樂가세
안것시나 누엇시나
行走坐臥 語默間에
만이하면 佛자念佛
적게하면 사자念佛
高聲이나 隱念이나
勸方대로念佛하되
실부기든 阿彌陀佛
질삼기든 阿彌陀佛
노년망의 雜談하고
아미라로 發願삼아
승수의 아미라를
時수의 아미라를
處수의 아미라를
事수의 阿彌陀佛
一生에 이리하면
極樂가기 어림을차
하도삼의 發願삼아
千里말에 부다가면
千里가기 어림삼보

金石의 무거워도
니머船에 싣엇시면
萬頃波 金은을
觸息間에 건너가나
우리가든 罪惡人도
阿彌陀佛念佛을
釋迦如來 大衆船을
船價입시 어되라고
念佛三昧 法海水의
면지시 커어니야
方便못대 받되달고
自實歌를나의區分에依하여 假令八節로되엿다고보면
一節至四節사기에서作者는人世의病死無常과地獄의苦痛을叙
述한뒤五節에서는極樂世界의莊嚴美麗를讚揚하고 六節에서
三라다사한出諸般地獄苦를드러衆生에게念佛을勸하였다. 그
리고 六節외지의作者의態度는자못哲學的의熱情으로一貫하
였다. 그는無常한現世에는少許의愛着도있고 오즉理想의極
樂國에안悅樂한情懷를가졌다. 그의思想은絕對的이며六節外
지에서그는조공도安穩의餘地를두지안이하엿다. 그리한것의
最後의八節에서三라다사는 忽然態度를一變하여 農夫婦女에
가所業은廢치말고生利의餘暇에念佛을하라고하엿다. 이것은
그가五節에서말한 世事는이커버리고日久月深至誠으로念佛

精進擲어 구지잡고
諸大聖賢 引接路에
阿彌陀佛 玉毫光을
핀줄이 빛히시며
四十八願 大願風을
太虛空에 빛져부나
十萬億 國土外를
頃刻間에 往生하네
이안이念佛船의
萬船中에 上船인가
南無阿彌陀佛

寒水地獄 灰河地獄
銅柱鐵林 險地地獄
외저바고 비허내고
일번삼고 일번삼고
하듯말 하르나세
萬善국이 萬善道生
귀代身이 된다하고
발은할 결입삼을
가지가지 송할노시
입키은 勢力삼아
念佛에 매드는다
이世上에 살아잇치
잘남고 덕을쳐드
한나잘 명암부고
한나잘 추은것도
전대기 어림가든
하를다 百千劫에
間斷입는 大苦痛을
그대지 업수너져
迂迴부리 지날소나
可憐相 人人事를
稱讚삼을 무엇하되
毀謗삼을 彌保하되

利錢毀譽 稱讚苦樂
八風이라 일터시나
바람가든 人間事는
얕은쳐 바히말고
如響 若雷하야
人事不省 부더되여
阿彌陀佛 着實코자
主人公 主人公야
우리부처 大聖賢의
그것말노 속커시라
非游心을 버지말고
자은강을 자조해의
竹篋子를 손에들고
이만사람 되어실혀
極樂國 蓮花臺를
掌中에 決斷하세
南無阿彌陀佛

幸得人身 나온사람
罪狀이 重한지라
六度萬行 싣데일치
升法門을 막으시고
念佛하여 極樂國은
末世에서 有益할
羅知上에 欣喜하사
文殊普賢 大菩薩과
大智度論 舍利弗等
重言復言 付囑하사
삼삼조사 (卅三祖師)
歷代聖賢
次수로 奉之하사
이날까지 流通하니
우리가든 罪惡凡夫
念佛할 엇지하리
切利天 帝釋님도
天上에 남군되야
七寶宮殿 조흔집에
天上樂을 受하다가
天上福이 다할때에
前生罪로 허러키서
탈과소도 되여가며

